2024 년 중한 국제전자상거래 제품 전시 및 무역상담회 연길서

8 월 3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RCEP 크로스보더 수출입쎈터 중한 쇼핑 페스티벌 개최

8 월 31 일, 2024 중한 국제전자상거래 제품 전시 및 무역상담회 개막식이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RCEP 크로스보더 수출입쎈터에서 개최되였다. 연변조선족자치주정부 부주장 소경량이 회의에 참석해 축사를 했다.

이번 행사는 성상무청, 주정부에서 주최하고 연길시상무국, 중국아시아경제발전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에서 주관하였는데 연변과 한국의 국제전자상거래의 깊이있는 협력을 촉진하고 대한 투자유치 및 경제무역교류를 촉진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국제전자상거래는 대외무역의 새로운 업태로서 연변과 각 지역이 경제무역교류를 진행하고 실무 협력을 심화하는 새로운 뉴대이다. 연변은 지역적 위치가 독특하고 플래트홈 정책이 중첩되여 높은 수준의 국제전자상거래 발전에 리상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근년래 주정부는 국제전자상거래 협력을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연변, 동북지역, 동북아시아를 향한 국제전자상거래 중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전력하여 량질의 크로스보더 제품의 중국 시장 진입에 쾌속 통로를 제공하고 중국 상품의 국제시장 진출에 교량을 마련했다.

연변은 지역 위치, 통로, 소어종 (小语种) 등 우세와 특색산업에 립각하고 연길과 훈춘의 국제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를 '쌍핵' 구동구로 하여 통일적인 계획과 련동, 협동 발전을 견지하고 정책 혜택을 충분히 방출해 항로가 밀집된 연길과 항구가 많은 훈춘의 교통우세를 확대하며 제도혁신, 관리혁신, 써비스혁신과 협동혁신을 추진하여 국제전자상거래 협력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서도록 촉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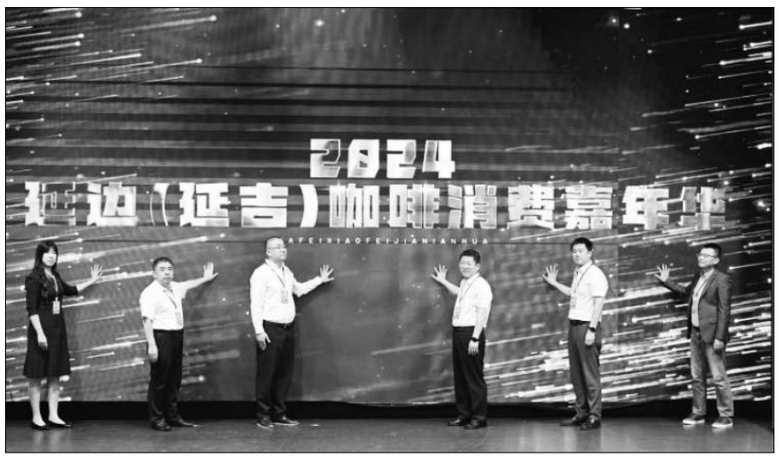
이날 개막식 현장에서는 연변의 투자 환경을 선전하는 영상이 상영되였다. 주상무국 국장 리서는 연변의 협력 우세와 투자 환경을 소개하고 연길공항보세물류쎈터 (B 형)와 훈춘 동북아국제전자상거래산업단지 등 입주대상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이 밖에 한중 전자상거래축제 조직위원회는 길림성서정기업관리그룹유한회사와 전략적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

료해에 따르면 8 월 31 일부터 9 월 30 일까지 RCEP 크로스보더 수출입쎈터는 '오프라인 + 온라인' 련동 전시판매 형식으로 중한 쇼핑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는데 상품전시장에는 10 개의 상담 부스를 설치해 중국과 한국 기업이 자유롭게 매칭할 수 있도록 한다. / 최화 김영화 기자

연변 (연길) 커피산업발전대화회 및 커피 소비 카니발 행사 개최

8 월 25 일, 2024 년 연변 (연길) 커피산업발전대화회 및 커피 소비 카니발 행사가 연길시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 개최되였다.

이번 활동은 상무부 류통산업촉진쎈터와 성상무청에서 지도하고 연변조선족자치주상무국, 연길시정부에서 주최, 연길시커피문화교류발전협회와 연길금융망의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향긋한 커피, 비범한 연변'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연변 커피문화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연길시 '현급 커피왕'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 동시에 연변 내외 커피기업간의 교류와 협력 플래트홈을 구축하여 업계의 첨단기술과 혁신 리념을 공유하고 커피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유치하여 연변의 커피산업이 더 높은



차원, 더 높은 품질로 발전하도록 이끌게 된다.

커피산업발전대화회에서는 연변의 커피산업 발전 상황을 소개하고 연길시에서 커피 항목을 추천 소개했으며 관련 기업 책임자들이 커피시장 소비 및 산업 발전 등 주제를 둘러싸고 대화를 진행, 연변 커피산업 발전에 의견을 제기했다. 이 밖에 메이퇀업종협력쎈터에서 〈2024 연변 커피 소비 지수〉를 발표하고 2024 년 '연변커피명점 Top20' 칭호를 수여받은 점포에 상패를 수여했다.

행사에서는 또 길림룽마트그룹유한회사와 상해거장커피식품유한회사가 커피 공급사슬 협력 협의를 체결하고 연변은희커피관리유한회사와 상해려품실업유한회사가 커피문화 창조 제품 협력 협의를 체결하였으며 연변지예품문화매체유한회사와 길림성척화생물과학기술유한회사가 제품 연구개발 협력 협의를 체결했다.

/ 김영화기자

연길보세물류중심 하루 무역액 1,000 만원 돌파

8 월 27 일, 연길국제공항경제개발구 보세물류중심 (B 형) 의 하루 무역액이 1,000 만원을 돌파했다.

27 일 새벽, 컨테이너 화물차들이 륙속 연길보세물류중심에 들어서 업무 신고가 끝날 때까지 대기하고 있었다. 8 시 30 분부터 이 중심의 사업일군들은 긴장 속에서 질서를 잃지 않고 분망한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13 개 컨테이너의 수입 화물에 실린 것은 한국에서 수입해 공항경제개발구 기업에 들이는 의료기계 등 제품이였다. 2 개 컨테이너의 수출 화물은 가공을 거친 명태였다. 이날 14 시 30 분까지 총 화물 가치가 1,500 만원에 이르는 화물 모두 신고 절차를 마쳤다.

상시화 운영을 시작한 3 년간 연길보세물류중심 (B 형) 은 '해외 화물 진입 보세', '국내 화물 진입 세금 환급' 등 경영 방식을 실현하고 가공무역 수출입, 수입 보세 창고저장, 일반무역 속지 신고 등 업무를 개통했으며 현재까지 60 여개 수출입 무역 기업을 지원, 육성했다. 연길세관 보세감독관리과, 공항물류국과의 업무적 련동을 통해 공항서정집단은 입주 기업에 신속 통관 일체화 봉사를 제공했다. 2023 년, 연길시는 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 건설을 가동하고 속달화물감독관리중심, 국제화물역, 해외창고 등 대상을 단계적으로 추동했으며 전 성에서 첫번째로 전체 모식 다국전자상거래 종합봉사 플래트홈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30 개 우수한 기업의 입주를 이끌어냈다.

올 들어 연길공항경제개발구는 연길보세물류중심 (B 형), RCEP 국제수출입중심의 운영을 최적화하고 다국전자상거래종합시험구 관련 정책을 충분히 리용하면서 지난 6 월 국제화물역 개조와 세관 속달우편감독관리중심 이전 공사를 마무리하고 화물의 다국 '복합운송' 기능을 탐색, 실현함으로써 다국전자상거래산업집군단지와 생방송전자상거래산업기지 건설을 추동하고 '다국전자상거래 + 산업벨트' 발전 구도를 다그쳐 형성하는 등 동북아를 향한 다국전자상거래 중추 도시를 건설하는 데 견고한 토대를 다졌다. / 연변조간

자률주행 자동차 시험번호판 루계 1 만 6,000 장 발급

8 월 27 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에서 열린 '고품질 발전 추진' 계렬 주제 소식공개회에서 공안부 교통관리국 국장 왕강은 공안기관은 루계로 자률주행 자동차 시험번호판 1 만 6,000 장을 발급하고 공공시험도로 3 만 2,000 키로메터를 개방하여 자률주행 기술 검증과 교체 갱신을 강력하게 뒤받침해주었다고 소개했다.

무인운전, 자률주행 자동차는 전세계 새로운 과학기술혁명의 큰 고지이다. 현재 끊임없는 기술 축적과 시험 발전을 거쳐 우리 나라 무인운전, 자률주행 자동차산업은 질서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왕강은 공안기관은 기능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법에 따라 교통참여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기술 발전의 수요에 부단히 부응하고 업종 주관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관리보장 사업을 잘해야 한다고 표했다.

공업정보화 등 부문과 적극 협력하여 도로시험을 추진했다. 우리 나라는 도로시험, 시범응용, 진입 및 도로통행을 포함한 자률운전 자동차 종합관리 체계를 한창 형성하고 있다. 도로시험과 시범응용 면에서 2021 년 7 월 공안부와 공업정보화부, 교통운수부는 공동으로 문건을 발부하여 자률주행 자동차가 도로에서 기술시험과 시범응용을 전개하는 주체, 운전자 및 차량, 도로시험과 시범응용 관리, 교통 위법과 사고처리 등 요구를 명확히 했다. 시험진입허가와 도로통행 면에서 2023 년 11 월 공안부와 공업정보화부 등 부문은 련합으로 규정을 출범하여 기술시험을 거쳐 량적 생산조건을 갖춘 자률주행 자동차 제품에 대해 진입허가시험을 전개했다. 진입허가시험후 공업정보화부 공고에 편입된 자률주행 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고 차량 등록을 취급하며 제한된 지역에서 도로통행 시범을 전개할 수 있다.

공안부는 〈도로교통안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자률주행 자동차의 도로시험, 도로통행, 책임추궁 등 면의 규정을 세분화했다. 왕강은 다음 단계에 공안부는 발전과 안전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공업정보화, 교통운수 등 주관부문과 적극 협력하며 법에 따라 자률주행산업의 진보와 자동차산업의 전환 승격을 안전하고도 질서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나라 경제의 고품질 발전을 위해 봉사할 것이라고 표했다.

/ 신화사

여름방학 철도 려객수송량 연 8 억명

8 월 26 일, 중국국가철도그룹유한회사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여름방학 휴가철 려객운수가 시작된 7 월 1 일부터 8 월 25 일까지 전국 철도 려객수송량은 전년 동기 대비 6.2% 늘어난 연 8 억명을 초과했다. 일평균 려객수송량은 연 1,433 만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철도그룹 운수부 해당 책임자는 "올해 여름방학 학생, 관광, 친척방문 등 출행 이동의 수요가 왕성해 철도 려객 류동량이 줄곧 활발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도부문에서는 려객, 화물 운수 및 안전을 참답게 총괄하고 여름방학 기간 려객운수 업무 방안을 제정해 운수 능력에 대한 투입을 강화하고 편민, 혜민 등 조치를 시달함으로써 려객들이 평안하고 질서 있게 출행하고 경제의 평온한 운행에 든든한 보장을 제공하도록 만전을 기했다고 부언했다.

려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출행을 보장하고저 각 지역 철도부문에서는 역소 봉사 및 련동 기제를 강화해 려객들의 출행 봉사에 만전을 기했다. 또 개학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학생들이 순조롭게 기차표를 구매할 수 있도록 담보했다. 국가철도 남창국그룹회사에서는 사전에 자동판매기에 대한 보수를 했고 인공판매, 환불 및 변경 창구를 증설함과 동시에 관할구역내 여러 기차역에 학생 기차표 구매 전용 창구를 증설했다. 국가철도 성도국그룹회사는 남방전력망 귀양전력공급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귀양북역, 귀양동역 등 고속철 허브역 그리고 관할내 상해—곤명, 귀양—광주 등 고속철도 연선 전력공급시설에 대한 안전 순찰을 펼쳤다. 이외에도 신형 기차표 구매 봉사 제도를 보급하는가 하면 철도망 원활 통행 바코드, '저소음 차바곤', 환승 편리 네트워크, 인터넷 음식 주문 등 출행 봉사의 능률과 질을 높이는 데 진력했다.

/ 신화사

이도백하진 대상건설 힘써 추진

대상건설의 황금기인 8 월에 들어서 안도현 이도백하진은 유리한 시기를 포착하고 '대상이 왕'이라는 리념을 확고히 수립하면서 대상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힘을 모아 기업 발전을 촉진하는 사업목표를 실현하고 있다.

시달을 틀어쥐여 대상 품질을 향상시켰다. 수차례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대상건설을 다그쳐 추진했다. 동시에 '일일배치' 사업기제를 실시하여 공사 기간 역행 배치로 책임을 강요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임무가 있고 모든 일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으며 일마다 반드시 시달되도록 했다. 동시에 추적봉사에 최선을 다하여 대상이 능률적으로 실시되도록 담보했는데 현재 9 개 중점 대상이 다그쳐 추진되고 있다.

미리 계획을 세워 대상건설 합력을 형성했다. 각 촌에 깊이 심입해 조사하고 각 촌의 현재 실태를 자세히 파악했으며 대중의 원성이 높은 민생 대상을 수집하고 대상 조률회 및 중점 대상 계획회의를 열어 정책 방향을 참답게 연구하고 대상을 미리 비축함으로써 '투자정책이 있으면 반드시 대상을 실시'하도록 담보했다. 현재까지 이도백하진에서는 20 여개 민생 대상, 산업 대상, 기반시설 대상을 기획했다.

봉사를 강화하여 일류의 경영환경을 힘써 구축했다. 현 직속 부문과 련계해 시공기업의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었다. 기업과 정상화 관계를 건립하고 대상건설에서 직면한 여러가지 문제를 수시로 해결함으로써 대상이 빨리 완성되고 대중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보했다. 대상이 착지한 후 경상적으로 기업을 도와 자금, 고용, 인재 등 문제를 해결해줌으로써 진정으로 기업을 위해 전 과정 도움을 펼쳤다.

/ 중국길림넷